

# 미세먼지 '나쁨'인 날, 교실 안도 '나쁨'

### 광주·전남 초·중·고 가을에도 심각...야외수업 자제 필요

### 노출 많은 봄 추가 조사해야...공기청정기 배치 시급

광주·전남 초·중·고교 42곳의 학교 건물 내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외수업을 자제해야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학교건물 안에서 측정된 것이다.

특히 사·도교육청이 매년 한 차례씩 하는 공기 질 측정이 미세먼지가 비교적 덜한 가을철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황사철인 봄철 학교 안 미세먼지는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공기 질 측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전남 1210곳 초·중·

고교(분교 포함) 중 42곳(3.47%)은 건물 안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mu\text{g}/\text{m}^3$ )가 80이상이었다.

전국적으로 1만1659개 초·중·고교(분교 포함) 가운데 1351곳(11.6%)이 건물 안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mu\text{g}/\text{m}^3$ )가 80 이상이었다.

미세먼지 등급은 농도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0~30이면 '좋음', 31~80은 '보통', 81~150은 '나쁨', 150 이상은 '매우 나쁨'이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나쁨 단계부터 실외 수업을 자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

하기로 했다. 시·도지역 일부 학교는 야외 수업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의 미세먼지가 건물 안에서 측정된 셈이다.

건물 안 공기 질은 통상 30분가량 환기를 시킨 뒤 공간을 밀폐하고 실시하기 때문에 이때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는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의 미세먼지 농도와 다소 다를 수 있다.

문제는 각 시·도교육청이 해마다 한 차례씩 공기 질 측정을 진행하는데, 미세먼지 우려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9월~11월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측정 시기를 조정하거나 노출 우려가 큰 시기에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학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학교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내놨지만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는 추경안에 포함된 측정기 설치비용 90억원을 삭감했다.

기상청이 미세먼지 농도를 발표하고 있는 만큼 측정기보다 공기청정기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기청정기의 경우 설치비용이나 유지·관리비 등 더 큰 예산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어 사·도별로 입장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추경을 통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관련 연구역도 실시해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3 해질 19:44  
달출 03:07 달짐 17:32

### 일사병 주의

폭염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 오는 곳 있었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맑음	26/35	보성	구름맑음	23/34
목포	구름맑음	26/32	순천	구름맑음	26/34
여수	구름맑음	26/32	영광	구름맑음	25/34
나주	구름맑음	24/34	진도	구름맑음	25/33
완도	구름맑음	26/34	진주	구름맑음	25/34
구례	구름맑고 비	24/34	군산	구름맑음	26/32
강진	구름맑음	24/34	남원	소나기	24/34
해남	구름맑음	25/34	홍산도	구름맑음	23/28
장성	구름맑음	24/34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남서	남~남서	0.5	남~남서	0.5
남부	남~남서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남~남서	남~남서	0.5	남~남서	0.5
서부	남~남서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남~남서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5:30	11:59
	17:36	-:-
여수	밀물	썰물
	01:01	13:10
	07:06	19:51

### ◇주간 날씨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	☀	☀	☀	☀	☀	☀
26/34	26/33	26/33	25/33	25/33	24/33	24/33



###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위험
피부질환	매우높음



“조선대 2기 이사진 즉각 퇴진하라” 20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 서석홀에서 ‘조선대학교 제2기 이사 즉각 퇴진 및 국민공익형 이사제 실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단체는 법인 이사장 판공비 횡령의혹 및 비리이사 진정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광주지역 청사까지 행진했다. /최현배기자 choi@

## 무등산 중심사 일대 문화·예술 입힌다

### 동구, 광주 유일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선정...10억원 투입

광주시민들의 오랜 휴식처인 무등산 중심사 일대(광주 동구 중심사길 30번길 일원)가 먹을거리 위주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을 접목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동구는 20일 “행정자치부 주관 ‘2017년 마을공방 육성사업’(4억원), ‘2017년도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무등동동(無等動動) 일일팔절(1187m) 거리조성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특수성과 보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쇠

퇴한 골목상권을 되살리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5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광주에서는 동구가 유일하다.

사업은 상가변형화·동구 공무원·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경제협의체가 도맡는 등 주민 주도형으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은 ▲캠핑장비·산림생태 전시회 ▲힐링별방캠프, 광주특산물 판매 등 ‘맞춤형 이벤트’ ▲거리 주·야간 경관, 상가 인테리어 개선, 무등산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 등 ‘랜드마크 조성’ ▲장소기반 스토리텔링 발굴, 생태환경·문화예술이

결합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이다. 또 선진지 탐방 등 경제협의체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도 강화한다.

동구는 이번 사업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매출 동반성장을 돕고 청년 창업거리조성, 일자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4월 기준 변형회 소속상가 매출액이 100%로 났을 때 2018년에는 115%, 2019년에는 135%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의재·무등현대·우재길·국운미술관, 전통문화관과 연계해 문화예술 체험을 강화하고 중심사·문민정사·원효사 등 사찰, 문화재와 연계한 장소마케팅도 펼친다. /김용희기자 kimyh@

## 운수업계 ‘갑질’ 집중단속

최근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 대형버스 추돌사고를 계기로 버스업계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자 경찰이 운수회사 등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일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교통인력 1700여명을 투입, 오는 9월 20일까지 2개월간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운수업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운전사에 대한 운수회사의 ‘갑질’ 횡포, 차량 등 관리감독 부실, 자동차 관계법령 위반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 오세인 광주고검장 오늘 퇴임

제42대 검찰총장 후보군 중 한 명이었던 오세인(52·사법연수원 18기) 광주고검장이 21일 오후 광주고등·지방법원 9층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는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학생들이 사서삼경(四書三經)의 하나인 대학(大學)의 문구를 낭송하는 이벤트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한학에 조예가 깊은 오 고검장은 재임 기간 틈틈이 고전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탁월한 시선으로 강의에 나서는 등 한학과 인연을 맺어왔다. 검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논어 등 고전을 가르쳤고 지역 향교 67곳을 방문하는 등 유림과 두터운 교분을 나눴다. 지역 유림 관계자들은 향교와 유림에 대한 오 고검장의 깊은 애정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퇴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퇴임을 앞두고 20일 광주일보를 방문한 오 고검장은 “일각에서 검찰에 남아



주길 바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검찰은 새 총장이 취임하면 사법연수원 선배나 동기들이 조직을 떠나는 전통이 있다”면서 “특히 (제가)조직

에 남는다면 동기인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 퇴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오 고검장은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강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 대변인,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제42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받았지만, 동기인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이 낙점됨에 따라 최종 후보자에 오르지 못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대학-카드사 뒷거래 무더기 적발

### 108개 대학·5개 카드사

### 등록금 결제 독점 댓가 ‘뒷돈’

특정 신용카드사와 계약해 등록금 결제에 대한 독점 권리를 주는 대신 카드결제 수수료를 리베이트로 받아온 대학 100여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사 등 5개 신용카드사 법인과 계약 담당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계약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B대학 등 108개 대학교를 교육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